

여수산단 G회사 협력업체 대표

수십억 비자금 조성 '파장'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G사의 한 협력업체 대표가 수십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가운데 검찰 다른 협력업체들까지 수사를 확대하고 나서 파장이 일고 있다.

21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따르면 G사가 시행 중인 모 공사의 토석 운반을 맡은 J업체 대표 백모(46)씨가 회삿돈 47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5일 구속됐다.

검찰은 계좌 추적을 통해 백씨가 빼돌린 돈이 원청사 직원들에게 전달됐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계좌 추적을 통해 백씨가 빼돌린 돈이 원청사 직원들에게 전달됐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G사 건설팀에서 근무하던 간부가 올해 초 캐나다로 도피한 것으로 알려져 이번 사건과 연관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낳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금명간 백씨를 기소할 방침이며 원청과 하도급 업체간 연결 고리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순천=김진수기자 jsk2229@kwangju.co.kr

순천 아파트에 불...2명 사상

21일 새벽 3시50분께 순천시 조례동 A아파트 6층 강모(44)씨 집에서 불이나 딸 강모(17·순천 J고 2년)양이 연기에 질식사해 숨졌다. 아버지 강씨는 얼굴과 손 등에 3도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지만 생명이 위독한 상태다.

불은 아파트 내부 23평을 모두 태운 뒤 13분여 만에 진화됐다. 불이 나자 소방차 15대와 소방인원 34명이 출동해 진화에 나섰으며, 아파트 주민 수십여 명이 옥상으로 대피하는 소동이 빚었다.

경찰은 불이 나기 앞서 강씨 부녀가 심하게 다투는 소리가 들렸다는 주민들의 진술에 따라 방화 여부 등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 중이다.

/순천=김진수기자 jsk2229@kwangju.co.kr

송광운 북구청장 처조카 사표

임용 과정에 의혹을 샀던(본보 9월19일 7면) 송광운 광주 북구청장의 처조카 박모(여·32)씨가 사직서를 제출했다.

북구청 관계자는 21일 "구청장 비서로 채용됐던 박씨가 이날 '누를 끼쳐 죄송하다'며 사표를 제출, 의원연직 처리키로 했다"고 밝혔다.

송 구청장은 광주시·전남도 간부로 근무했던 시기에 친인척을 유관기관에 취직시키고, 최근 처조카를 자신의 비서(기능직 10급)로 특채해 '정실인사' 논란을 일으켰다.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벼락 맞고도 살아난 박종수씨 기적같은 '그 날' 회고

골프에서 출인원 할 확률은 2만분의 1, 자동차 사고로 사망할 확률은 3만분의 1, 화재로 사망할 확률은 40만분의 1, 벼락을 맞아 사망할 확률은 50만분의 1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벼락에 맞아 살아남 확률은?



“짜릿! 하더니 힘이 쑥~ 빠집니다”



“할아버지~ 내 손은 약손”

낙뢰를 맞고도 살아난 박종수씨가 자신의 상처부위를 어루만지는 손자의 재롱에 흐뭇한 표정을 짓고 있다.

/목포=위지량기자 jrwi@kwangju.co.kr

벼락을 맞고도 살아난 역세계 운 좋은 사나이 박종수(51·목포시 죽교동)씨는 요즘 사는 것이 꿈만 같다.

“하늘이 들렸던 것 같아요.” 박씨가 벼락에 맞은 것은 지난 8월27일. 이른 새벽부터 '제3어곡호'(7.83t·선장 안승렬)를 타고 신안군 임자도(荏子島) 앞바다에서 제철을 맞은 민어(民魚)를 잡던 그는 신바람이 나서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그물을 잡아올렸다. 이미 한 가득 잡은 민어를 임자도에 퍼놓고, 두 번째 조업 중이었다.

하지만 이날 오전 7시50분.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박씨는

신안서 민어잡다 사고 고막 파열·가슴엔 화상 6주만에 '기적의 회생'

서둘러 작업을 마치기 위해 동료 2명과 물러 3대가 물레처럼 돌아가는 양승기(揚繩機)로 그물을 끌어올리기 시작했다.

“우르릉 과파광~” 뇌성이 귀를 울렸다. 오싹해진 박씨는 잠시 들어올리던 그물을 놓았다. 다시 양승기를 잡자 또 한번 벼락이 쳤다. 박씨는 “악”하는 비명과 함께 갑판에서 튕겨나갔다. 벼락은 왼쪽 귀에서 배꼽 아래까지 스쳤다. 동료 선원들은 과도에 휩쓸려가는 박씨를 건져 올린 뒤 목포해경에 구조 요청을 했다. 구조 팀이 도착했을 때 박씨는 정신을 잃고 맥박마저 희미해 생사가 오락가락한 상태였다.

응급 조치를 받은 그는 목포 한국병원 응급실로 옮겨졌다. 박씨는 다시 전남대병원 응급실·중환자실을 거쳐 지금은 목포 한국병원 일

▲낙뢰=낙뢰가 발생할 때 순간 온도는 태양 표면 온도의 4배인 3만도(°C)며, 전류 값은 최고 2만A(암페어)에 달한다. 2만A는 100W 전구 7천 개를 32시간 켤 수 있는 에너지. 이 가운데 80%는 전기 저항이 적은 체내로, 나머지는 피부로 흘러 화상을 입힌다

반 병동에 입원 중이다.

“죽도록 두들겨 맞은 것 핑키로 온몸에 심(힘)이 쑥 빠져나갑니다”

사고 후 25일 만인 21일야 자리에서 일어나 말문을 연 박씨는 “벼락 맞을 때는 ‘짜릿’한 느낌과 함께 정신을 잃었고, 3일 만에 의식을 찾고 보니 병원이었다”고 말했다.

한국병원 주치의 민상운(내과) 박사는 “고막이 파열됐고, 몸에는 1도 화상을 입었다”며 “3주 쯤 후에는 퇴원해 정상 생활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고 후 6주 만에 회생(回生)하는 것이다. 왼쪽 귀부터 배꼽 아래까지엔 50cm 가량의 번개 모양 흉터가 남았다.

주변 환자들은 “번개를 맞고 살아남 운이라면, 로또라도 한번 사보라”고 권유하고 있다. 하지만 그는 “살아남 것만도 고마운 일인데, 무슨 욕심을 더 부리겠느냐”고 고개를 흔들었다.

“바다요? 인자는 절대 안 나갈라요” 건축 현장에서 노동을 하며 살아온 박씨는 일거리가 없자 배를 탄 한 달 경력의 ‘초보 선원’이었다.

한편 지난 해 담양·장성·화순 등 광주권에서 지난해 발생한 낙뢰는 총 9천704회로, 하루 평균 26.6회꼴이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매년 6명 가량이 낙뢰에 맞아 사망한다.

/사민정기자 viola@kwangju.co.kr

여고생 빗자루로 60대 때려

광주서, “버릇없이 군다” 담임교사가 체벌

엉덩이 피멍 입원 치료...학부모, 교사 고소

광주지역 한 고교 여교사가 자신이 담임 맡고 있는 반 여학생이 동료 교사에게 버릇없게 굴었다며 정소용 빗자루로 엉덩이를 60여 차례나 때려 물의를

빚고 있다. 때를 맞은 학생은 2주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해 치료 중이며, 학생의 부모는 담임 교사를 상해 혐의로 광주 북부

경찰에 고소했다.

광주 S고 관계자와 학생들에 따르면 이 학교 2학년 담임인 K교사는 지난 19일 오전 8시 자신의 반 학생인 L양을 복도로 불러내 정소용 빗자루로 엉덩이와 허벅지 등을 60여 차례 때렸다.

K교사는 집안 일로 학교를 하루 쉰 18일, 자신을 대신해서 생활지도를 맡았던 다른 교사에게 “L양이 자습시간 중 다른 반에서 놀고 있어 훈계했더니 짜러보며 말을 듣지 않았다”는 말을 전해듣고 이날 때를 든 것으로 전해졌다.

L양의 부모는 “상처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이번 체벌은 ‘사랑의 때’가 아닌 감정이 섞인 매질이었다”고 주장했다.

S고 관계자는 이에 대해 “K교사가 L양을 체벌한 것은 사실이지만 L양의 주장처럼 60여 차례 때리지 않고 20여 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고 해명했다.

/황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

옛 애인 감금 성폭행 하려다 '덜미'

○~헤어진 애인의 집을 찾아가 애인과 친구들을 감금하고 성폭행하려 한 30대가 경찰에 덜미.

○21일 광주 동부경찰에 따르면 양모(31·순천시 주암면·무직)씨는 지난 4월16일 오후 3시께 광주시 동구 지산동 송모(여·22·광주 모 대학 2년)씨 집에서 송씨와 친구 김모(여·20·대학 1년)씨 등 3명을 감금한 뒤, 김씨를 성폭행하려 했다는 것.

○김씨는 화장실 창문으로 뛰어내려 '화'를 면했는데, 양씨는 4개월간 사귀던 송씨가 갑자기 헤어지자고 해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

정남진 장흥에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40만명의 은빛 역사 물결로 가을의 정취와 여유를 흠뻑 느껴주세요...

<h3 style="text-align: center; color: red;">2006년 가을맞이 행사</h3> <p>장흥군 문화체육관광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월 22일(금) 장흥읍 문화체육관광과 ● 9월 23일(토) 장흥읍 문화체육관광과 ● 9월 24일(일) 장흥읍 문화체육관광과 	<h3 style="text-align: center; color: red;">비밀에 이어동 안</h3> <p>장흥군 문화체육관광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월 22일(금) 장흥읍 문화체육관광과 ● 9월 23일(토) 장흥읍 문화체육관광과 ● 9월 24일(일) 장흥읍 문화체육관광과
--	--

주 권 장흥신학원 문안전원 장흥군청 문화관광과 ☎ 0724-0726